2009 KOIMA 동남아시아 통상사절단

미얀마(Myanmar) 정보

2009. 8.

한국수입업협회
국 제 통 상 팀

목 차

Ⅰ. 미얀마 개황 1

Ⅱ. 미얀마 경제 현황 3

Ⅲ. 미얀마 산업 구조 6

Ⅳ. 한-미얀마 교역 현황 11

Ⅴ. 對미얀마 한국기업 투자 현황..... 13

Ⅵ. 미얀마 비즈니스 Tips 15

미얀마 개황

가. 일반 사항

국명	ㅇ 미얀마 연방(구 버마) / Union of Myanmar (Burma) - 7개 State와 7개 Division으로 구성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위치	ㅇ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ㅇ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ㅇ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676,577㎢(한반도의 약 3.5배)
기후	ㅇ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 4℃,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5월 하순 ~ 10월 말(거의 매일 비) - 겨울: 11월 초 ~ 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5,737만 명(2008년도 정부 발표)
주요 도시	ㅇ 양곤, 만달레이, 벤마나, 빠떼인, 바고, 삐 등 - 양곤: 2005년 11월까지 수도였으며, 현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 - 네피도: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수도 - 만달레이: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및 불교 중심지이며 영국 식민 통치 전 제국의 마지막 수도 - 빠떼인: 양곤에서 서쪽으로 160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쌀 및 수산물(새우) 생산 중심지
민족	버마족(70%), 소수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 25%) 기타 (중국계, 인도계 등 5%)
언어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호텔 종사자들은 영어 구사),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SPDC: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중심의 과도기적 성격의 군사정부
국가 원수 (실권자)	ㅇ 국가 원수: 딴쉐(Than Shwe) 장군(SPDC 의장 겸 국방부장관) - 취임일: 1992년 4월 23일(임기 제한 없음) - 딴쉐(Than Shwe) SPDC의장 겸 국방부장관이 최대 권력을 쥐고 있으며, 마웅에(Maung Aye) SPDC 부의장, 투라쉐만(Thura Shwe Mann) SPDC 멤버가 각각 2, 3인자로 알려져 있음. ㅇ 수상: 떼인 세인(Thein Sein) 장군 ㅇ 취임일: 2007 년 10 월 24 일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

나. 경제 지표

GDP	US$ 227억(2008년 추정치)
실질 경제 성장률	0.9%(2008년 추정치)
1인당 GDP	US$ 438(2008년 추정치)
실업률	통계 없음.
물가 상승률	21.8%(2008년 추정치)
화폐단위	Myanmar Kyats(Kt)
환율	US$1 = Kt 1,015 (2009년 4월)
외채	US$ 77.4억(2008년 추정치)
외환 보유고	US$ 21.3억(2008년 추정치)
산업구조	농업(38.4%), 공업(25.8%), 무역 및 서비스업(35.8%) (2005년)
교역 규모	ㅇ 2007년 추정치 - 수출: US$62 억 - 수입: US$30 억 - 무역흑자: US$32 억 ㅇ 2008년 추정치 - 수출: US$63 억 - 수입: US$34 억 - 무역흑자: US$29 억
교 역 품	ㅇ 수출: 천연가스, 티크 및 목재, 콩류, 섬유류, 수산물 ㅇ 수입: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철강 및 금속제품, 섬유류, 전기 장비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자료: EIU Contry Report(2009. 4월호), 미얀마 중앙통계청

다. 한-미얀마 관계

체결 협정	무역협정('64 체결, '67 개정) 뉴스교환협정('72) 항공협정('78) 임업약정('99) 이중과세방지협정('02)
교역 규모	ㅇ 2008년 -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수출: US$ 2억 4,382만 - 수입: US$ 1억1,625만 - 무역흑자: US$ 1억 2,756만
교역품	ㅇ 우리나라 수출: 직물, 산업 기계, 석유화학 제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 ㅇ 우리나라 수입: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투자 교류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08년 12월 말 기준), 37건 US$ 2억 3932만 ㅇ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08년 12월 말 기준), 118건 US$ 2억 5441만, 투자금액 US$ 9,675만
교민	총 교민 수 약 1,000명(2008년, 외교부 추정치)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미얀마 경제 현황

가.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5(실질)	2006(실질)	2007(추정)	2008(추정)	2009(예상)
GDP (십억 달러)	11.2	11.8	16.3	22.7	26.0
실질GDP성장률(%)	13.6	3.4	3.4	0.9	0.3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	14.3	28.4	28.6	21.8	12.7
대출 이자(%)	15.0	17.0	17.0	17.0	17.0
예금 이자(%)	10.0	12.0	12.0	12.0	12.0
FOB 상품 수출(1억 달러)	37.9	45.6	61.7	63.2	49.1
FOB 상품 수입(1억 달러)	17.6	23.4	29.6	34.3	29.0
경상수지(백만 달러)	576	760	1,285	1,000	501
외환 보유고(백만 달러)	782	1,248	1,862	2,132	1,921
대외채무(십억 달러)	6.6	6.8	7.1	7.7	7.3
연평균 환율(짜트: 달러)	1,095	1,280	1,290	1,185	1,175

자료: EIU Contry Report(2009. 4월호)

나. 국내 경제 동향

EIU에 따르면 2008년도 미얀마 실질 GDP성장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5월 사이클론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얀마의 주요 수출 시장이 경기침체를 겪음에 따라 미얀마 경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률은 0.3%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부터 미얀마 경제도 1.2%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봉제업은 2005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7년 9월 시위 사태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고 2009년도에는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의복 수요가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08-09년(4월부터 12월) 국영 기업의 생산 실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천연가스의 생산이 9.4%, 합판, 면사의 생산량이 각각 66%, 11% 감소하였고 면사와 시멘트의 생산량이 각각 10%, 14% 증가하는데 그쳐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FDI)도 전력, 석유가스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2008-09년도(4월~12월까지)의 외국인 투자는 4건, 9억6700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광업(1건), 석유가스(3건)에 집중되었다. 2006년 4월 태국으로부터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이후 실질 투자는 지연 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 열악한 투자 환경,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 시민 단체의 미얀마 상품 보이콧 운동 등은 투자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8년 5월 양곤 등 미얀마 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2007년도 시위 사태 등은 투자자들에게 미얀마의 대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비추고 있다.

다. 대외 거래 동향

최근 미얀마의 무역 수지는 천연가스의 수출 호조로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얀마 중앙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4월에서 12월까지의 2008-08년 회계연도 기준 미얀마 수출은 '07년 대비 약 12.7% 증가한 53.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41.5% 증가한 3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티크 및 하드우드,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직물 등이다.

천연가스의 수출이 '07년 대비 7.4% 감소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콩류, 티크 및 하드우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다.

globalwindow

수입의 경우 네피도(신수도)의 건설과 사이클론 피해복구, 전력, 에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로 인해 건설 중장비 및 운송 장비의 수입이 94%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정유의 수입은 72% 증가한 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 경제 전망

IMF에 따르면,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년 3.4%, 2007년 3.4%, 2008년 0.9%로 추정된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적자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 증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고, 국외적으로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얀마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2008년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10~1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역시 광업, 석유 가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로 미얀마 경제를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의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2010년 미얀마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미얀마 국내외적으로 정치 체제가 안정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석유·가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과 제조업 부문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은 국제 기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인권 단체의 미얀마 제품 보이콧 운동, 만성적인 전력 부족 때문에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수도인 네피도 지역으로의 행정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네피도 지역의 인프라 미비, 위생 설비 미비 등으로 수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양곤 시에서 수출입 허가 업무를 중단하는 등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 부문의 과도한 지출과 더불어 신수도 건설을 위한 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교육, 인프라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8월 미얀마 정부의 유가 인상 조치로 승려 및 시민들의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10월에 미얀마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사태로 인한 정정 불안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시위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정부를 향해 표출될 수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보다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미얀마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지만,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의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쌀 생산에 대한 피해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투자 자본이 거의 없는 미얀마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금융 위기로 침체를 맞으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미얀마 산업 구조

미얀마는 지난 26년간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대외 무역을 금지해 왔다. 1988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현재까지 규모가 큰 공장과 주요 산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국영 기업 거의 대부분이 외화 부족에 따른 원료 수입 곤란, 노후 기계 교체 지연 및 수리 불량 등으로 가동률이 현격히 낮은 편이다.

현재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력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특히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 개발 분야가 전통적인 농수산업, 임업 등과 함께 미얀마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얀마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은 농업이 38.4%, 공업(제조업 포함)이 25.8%, 무역/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농업의 GDP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가. 에너지, 광물 자원 산업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될 수 있는 조건이다.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은 물론 중부 내륙지방에도 원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동부 산악지대에는 함유셰일(Oil shale)이 발견되고 있다. 주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탄이 동부 산악지대 및 북서부 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각종 광물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내포한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아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도 풍부하여 동남아의 자원 부국으로 불리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미얀마는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각각 Arakan(Rakhine), Indo-Burman Ranges, Western Inner-Burman Tertiary Basin, Central Volcanic Belt, Eastern Inner-Burman Tertiary Basin, Sino-Burman Ranges 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Basins 지역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가, Ranges 지역에는 각종 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Sino-Burman Ranges에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루비, 사파이어, Jade 등 보석류가 매장되어 있으며 금, 다이아몬드, Zinc-tungsten이 매장되어 있다. 광종별로는 Lead(납)-zinc(아연)-copper(동)계열 광물, Tin(주석)-tungsten(텅스텐) 계열 광물, Gold-silver 계열 광물 채굴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4년 새로운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외국 업체의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아직도 생산과 수출은 미얀마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모니와(Monywa) 구리 광산은 미얀마 광업 1부와 캐나다 광물개발업체 아이반호사(Ivanhoe Mines Inc.)가 50:50 합작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루비, 제이드와 같은 보석류 역시 미얀마의 주요 외화가득원이다.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 분	단위	매장량	비 고(세계 비중 등)
원유	백만배럴	3,200	0.25%
천연가스	tcft	16	1.07%
철광석	십억톤	0.3	0.38%
석탄	십억톤	0.2	-
니켈	백만톤	40	Nickel ore 기준
동	백만톤	21	Copper ore 기준
아연	백만톤	14	Lead ore 기준
우라늄	-	N/A	부존확인

자료: 광진공, UNDP, 에너지경제연구원, 양곤무역관종합

나. 농림수산업

globalwindow

농업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비중 면에서, 외화가득원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농산물 총 재배(Gross Sown) 면적은 20,414천 헥타르에 달하며 순재배(Net Sown)은 10,516천 헥타르로서 동일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 (Multi-cropping)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 및 토지대를 자랑하며 그 결과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즉,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역, 중부 건조지역, 동서북 산악지역으로 구분된다. 곡물(Cereal) 경작 면적은 2004/2005년 전체 경작 면적(Sown area) 43,073천에이커 중 44%를 차지하는 17,431에이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미얀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벼 경작 면적은 전체 경작 면적의 39%이다.

쌀은 미얀마인들의 주곡으로서 미얀마 정부에서는 쌀의 증산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쌀 생산은 재배 면적의 확대,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다모작,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으며 193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한 바도 있다. 하지만 오랜 군사 독재 체제하의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으로 생산성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여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의 증가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 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로 쌀의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신 콩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쌀의 경우 주곡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콩 등 기타 곡물 및 농작물은 민간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는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다.

미얀마는 전 국토의 약 52%가 산림 지역으로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얀마 산림부(Ministry of Forest)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약 8,570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2,300여종의 수목과 850종의 난초류, 97종의 대나무류, 32종의 갈대류(cane)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은 티크(Teak), 하드우드(Hardwood) 등이며 특히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산림 면적 중 티크의 면적은 약 610만 헥타르 정도 이고 10%는 조림 목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티크의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30만 톤 정도이다.

티크와 하드우드의 벌목 및 수출현황

(단위: Cubic ton)

회계연도	티크 벌목	티크 수출	하드우드 벌목	하드우드 수출
2001-02	276,067	200,500	1,135,821	285,600
2002-03	297,979	205,600	1,072,734	308,000
2003-04	362,039	281,100	1,126,862	390,800
2004-05	300,497	319,200	1,148,876	496,800
2005-06	307,060	333,100	1,177,000	636,700
2006-07	NA	347,400	NA	637,400
2007-08	NA	282,400	NA	791,800

주: 회계연도는 4.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국 (CSO)

2005년 기준 양곤 시와 해안 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형태로 생산하는 업체는 130개가 넘는다. 미얀마의 수산물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호주, UAE 등 약 40여 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약 150개 정도 있다.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정도이며, 지난 10년 동안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새우 등 갑각류와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다. 특히 새우는 그 품질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2004~2005)

순번	품목명	수출량(Ton)	수출액(US$ Million)
1	Sea Water Shrimp	21,798.7	100.8
2	White Pomfret	6,727.8	19.6
3	Hilsa	13,016.5	19.1
4	Rosy Jew Fish	9,393.2	13.1
5	Ribbon Fish	15,618.6	12.6
6	Yellow Croaker	5,613.9	7.8
7	Long Tongue Sole	4,414.5	4.4
8	Sea Water Fish	5,571.4	4.2
9	Cuttle Fish	2,247.8	3.4
10	Sea Eel	3,540.3	3.3

자료: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Department of Fisheries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다. 전력 산업

미얀마의 전력 수요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전력 설비의 부족과 계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전기를 공급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전력 부문의 개발이 미얀마 정부 내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미얀마는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부 안다만(Andaman)해까지 남북을 가로 지르는 에야워디 강(Ayeyarwady, 예전엔 Irrawady)과 그 지류인 친드윈(Chindwin)강, 그 외에도 딴린(Thanlwin)강, 시타웅(Sittaung)강 등 총 길이가 5,600㎞에 이르며 연간 평균 강수량이 2500mm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이런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산업 발전 6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미얀마 전체 발전 용량은 회계연도 2007~2008년 기준 1,690MW이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2004년 이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새로운 수력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전 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형태별로는 수력발전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스 발전이 33%, 디젤발전 4%, 기타 화력발전이 19%를 차지 하고 있다.

라. 제조업

미얀마 제조업은 농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식음료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냉장설비 투자 증가는 수산물을 주요한 외화가득원으로 만들었고, 정제 공장 투자증가는 정제 설탕생산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아울러 미얀마는 합판, 베니어, 가구 등 임업관련 제조업 또한 국내사용 및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다.

www.globalwindow.org

농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이외에 최대 제조업 분야는 수출을 전제로 한 봉제 분야이다. 봉제 분야는 제조업 중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다. 그러나 2003년 7월 미국의 미얀마 제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약 300개 봉제공장에서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봉제산업이 극한 침체 상태를 맞은 바 있다.

그 후 미얀마 봉제 산업은 미국 대신 유럽, 일본 등을 대체 시장으로 발굴하면서 2003년, 2004년 극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오더량 기준으로 미국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봉제산업의 호조로 원부자재인 면사, 직물의 제조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 봉제업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봉제 수출량은 '06년도 전체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과 일본의 오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원인이다.

봉제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 분야는 원가 부담 증가와 자금조달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 제조업은 열악한 인프라, 인권문제를 이유로 일반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1998년 초부터 시작된 수입제한 조치가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써 주요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인해 발전기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유 구입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 태국, 인도 등 인접국과의 국경 무역을 통한 저가 제품 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국내 제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5월에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해 양곤에 소재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업체들이 피해 복구와 전력을 자체 발전기에 크게 의존하는 등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단기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 나고 있다.

한-미얀마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2009년 1/4분기 미얀마 수출은 '08년 1/4분기 대비 103.5% 증가한 741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정밀화학 제품, 직물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해 싸이클론에 따른 피해와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미얀마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품목이 미얀마 산업에 필수적인 중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72.5% 감소한 1122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표적으로 섬유제품(의류)와 농수임산물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봉제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섬유제품의 수입 감소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2년 이후,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의 인지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수입)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품질보 다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시장 특성에 까닭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언더밸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 시 싱가포르나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미얀마 간 교역량을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globalwindow.org

한국의 대 미얀마 수출입 총괄

www.globalwindow.org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1~3월)
수 출	120.0	121.3	292.0	243.8	74.1
수 입	56.3	96.4	80.7	116.3	11.2
무역수지	63.7	24.9	211.3	127.5	62.9

자료: KOTIS

한국의 대 미얀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43,815	-16.5	74,121	103.5
1	61	철강제품	88,845	-38.9	41,624	721.3
2	72	산업기계	28,731	9.7	5,897	-6.3
3	21	석유화학제품	16,255	131.5	4,611	219.1
4	22	정밀화학제품	9,200	27.3	3,423	74.5
5	43	직물	16,306	-6.7	3,311	52.9
6	31	플라스틱제품	14,797	19.6	2,999	-31
7	44	섬유제품	15,586	45.4	2,353	5.2
8	33	가죽및모피제품	11,290	28.3	2,174	-14.7
9	62	비철금속제품	6,292	-19.2	1,250	-12.2
10	74	수송기계	3,672	2.2	1,181	0.9

주: MTI 2단위로 품목분류

자료: KOTIS

한국의 대 미얀마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6,254	44.1	11,224	-72.5
1	44	섬유제품	30,436	0.6	7,377	-8
2	1	농산물	7,787	28.8	1,302	-14.8
3	3	임산물	5,416	-53.2	1,187	-20.2
4	4	수산물	4,095	14.8	743	-15.3
5	51	신변잡화	957	56	400	82.7
6	59	기타생활용품	297	4.2	55	6.5
7	74	수송기계	185	-12.1	46	-7.6
8	57	공예품	52	-25.2	29	-28.3
9	52	가구	34	-80.2	19	577
10	43	직물	47	-25.3	19	77.3

자료: KOTIS

한국기업 투자 현황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37건, 2억 4,300 만 달러이며 미얀마 투자 순위 9위에 올라있으며 전체 투자의 1.55%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수출입 은행 통계로 본 2008년 12월말 기준 실제 투자 규모는 9,675만 달러이며, 2004 년 이후 한국의 대 미얀마 신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송금 건수	투자 금액
118	53	254,413	182	96,751

주 1: 2008년 12월 말 기준(누적)
주 2: 신고 건수는 공동 투자, 증액 투자를 포함하고, 송금 건수는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대부분은 의류 봉제업으로 대우 봉제, 오팔, 미얀스타 등 약 40여 개 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투자 업종인 봉제업은 2003년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 제재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위기를 맞이한 바 있으나 2005년부터 유럽, 일본으로부터 오더가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가발 제조 업체인 하이모는 2005년부터 미얀마에 현지 공장을 시험 운영하면서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미얀마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 최초의 투자 진출은 1990년 대우전자가 가전제품 생산에 투자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대우 계열사의 투자가 잇따랐고 현재는 봉제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는 신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도되어 에스콰이어, 써니 상사 등 두 개의 정장화 생산 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 조치로 대미 의류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한국 봉제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투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 업체의 미얀마 투자가 급속히 침체되었다. 2002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CJ, 대우전자 등이 철수했으며 미얀마에서 건재자용 아연강판을 생산하던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다시 재개한 바 있다.

의류봉제 및 신발봉제 이외에 일반 제조업으로는 대우목재(합판), 더원(등나무 가구 및 소품), 머큐리레이스(PVC 호스) 삼공(고무보트), 미원쉐타진(PVC 파이프, 플라스틱 연포장재), 에스박스(카톤 박스), UPI(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개인 무역 업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식 외국인 투자 절차를 밟지 않고 미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봉제,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임업, 수산업 등 현지의 풍부한 원료 활용이 가능한 산업, 곡물 및 바이오작물 등 농업, 부동산 등 서비스 투자를 검토, 진행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투자 기업 현황

회사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종업원수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지사	1995	50	㈜대우인터내셔날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지점	1995	7	효성
대우목재	제조업	합판	합작	1992	1000	㈜대우인터내셔날
대우봉제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1	2700	㈜대우인터내셔날
미원쉐타진	제조업	PVC파이프	합작	1994	230	대상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합작	1997	140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제조업	PVC호스	합작	1999	130	
삼공물산	제조업	고무보트	단독	1996	200	삼공물산
UPI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합작	1995	80	
더원	제조업	등나무가구	단독	2002	110	더원
써니	제조업	가죽구두	단독	2000	600	
태평양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9	800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0	800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300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8	750	해외무역

globalwindow

미얀마 비즈니스 Tips

가. 문화적 금기 사항

미얀마는 135 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써 버마족이 70%, 샨족, 몬족, 카렌족 등 미얀마 소수 민족과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기타 종족이 나머지 30%를 구성하고 있다. 종교 역시 불교가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한다. 따라서 문화 역시 다양한 종족과 종교 간 문화가 뒤섞인 가운데 이웃한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편이다.

미얀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 용무를 볼 때를 빼고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나 외부에서는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만 집에서 자신들끼리 식사할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는다.

미얀마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미얀마인이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이다.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미얀마 기업인에게 명함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의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 대부분은 명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사장을 제외하고는 명함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명함을 소지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지 않을 때 재차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미얀마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편이지만,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술과 담배를 한다면 직업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상 결례가 된다. 여성과 인사를 할 때도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얀마는 과도기적 군사 정부 체제로써 민주화, 인권, 마약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고 있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 극도의 정보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물이다.

미얀마인들의 공식 복장 및 평상 복장은 남녀 모두 론지(미얀마 전통 의상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의 일종)에 슬리퍼(엄지발가락을 별도로 끼워 넣는 한국 개념의 굽 없는 쪼리)이며, 미얀마 남성이 한국 개념의 치마를 입는 것 역시 미얀마 고유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군인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무실에서 늘 군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 주제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미얀마 기업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분야의 제품이라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담 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I am Sor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15~30 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외국인)이 이 정도 늦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편이다. 미얀마인의 기본 복장이 론지와 슬리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 시에도 하의는 론지를, 상의는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를 입는 편이며, 신발은 슬리퍼를 신는다. 이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 관리는 일반인에 비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 및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도를 더해간다.) 따라서 이들을 만날 경우에는 옷차림, 대화 기법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 전통 식품(인삼차, 인삼 엑기스 등)이나 전통 소품(인형, 탈 등)을 선물로 준비하면 좋다.

다. 상담 시 유의 사항

미얀마인들은 대체로 빠르고 급한 일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며 싫은 기색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편이다. 따라서 'No'라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www.globalwindow.org

미얀마와 한국 산업 발달 수준의 큰 격차로 인해 카탈로그만으로는 한국의 첨단 제품을 미얀마 바이어에게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상담 시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얀마 바이어는 상담 시 CIF YANGON 기준 가격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미얀마 여성의 사회 활동이 왕성한 관계로 비즈니스 상담 시 여성들이 대화 상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과 처음 대면 시에는 악수보다는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할 경우 이에 응하면 된다. 기업인, 특히 공기업 관계자 또는 정부 인사와 상담 시에는 정치 이야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사회 통제로 인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터부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밝고 부드러운 상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TV 드라마 '가을동화' 주인공 은서(송혜교), 준서(송승헌), 태석(원빈) 이야기를 꺼내면 좋다. 미얀마는 현재 한국 TV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 열풍이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으며, TV 를 볼 수 있는 여건의 미얀마 국민 전체가 한국 TV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특히 '가을동화'는 한류를 촉발 시킨 TV 드라마 원조로써 미얀마 국민 모두가 이들 주인공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한-일 월드컵,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담을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 바이어와 교신 방법

미얀마의 전기 및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정확한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팩스의 경우, 전화팩스 겸용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팩스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팩스로 전환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팩스를 보내면 된다. 팩스로의 전환은 '팩스 푸인바(팩스 열어주세요)'또는 '팩스 뽀친데(팩스 보낼게요)'라고 표현하면 된다.

미얀마 기업인은 이메일 교신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전기 및 통신 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복구되는 대로 바로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와의 교신 방법으로는 이메일이 가장 좋으며, 팩스를 겸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다.

마. 바이어 신용도 조회 방법

미얀마에는 신용 조회를 위한 현지 기관이 없다.

바.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globalwindow
www.globalwindow.org

1) 수입 관행

미얀마는 고질적인 외환 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극도의 수입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 가능하며, 수입 허가서 신청에서부터 실제 L/C 오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얀마는 통상 국가 신인도가 매우 떨어지는 나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보험도 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정상 무역을 위한 외환 취급 은행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 두 개 은행에 불과한데 이들은 MFTB(Myanmar Foreign Trade Bank)와 MICB (Myanmar Investment Commercial Bank)이다. 이들 은행에서 L/C 를 발급받기 전에 수입대금의 100%를 예치하고 외환 잔고 증명을 상무부에 제시해야만 I/L(수입허가)를 받고 L/C 를 개설할 수 있으며, 승인된 외화는 다른 용도로는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L/C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은행에 수입 대금을 100% 선 예치하는 금융 부담, 시장 환율보다 10~15% 가량 높은 Export Earning 구매 부담 및 자사 외환 흐름의 노출을 꺼려 많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수입 대금의 일부만을 정부에 공식 신고하는 언더밸류가 일반화되어 있다. Export Earning 이란 수출 대금을 의미하며, 미얀마에서는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의 Export Earning 을 구입(계좌이체)해서 수입 활동을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L/C 거래만을 인정하며, T/T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더밸류가 성행하고 있어 차액은 T/T, 혼디(환치기) 또는 인편에 직접 전달하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수입 허가 시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했던 수입 허가서에 기록된 동종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한편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관련 제도는 사전 공지 없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미얀마 수출입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를 하는 외국 수출입 업체 또한 갑자기 바뀐 제도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2 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국계 무역회사의 신규 영업 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수출입 허가서 발급을 중단하여 수많은 외국계 무역 회사가 자체 이름으로 수출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거래 시 유의 사항

미얀마 수입업자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미얀마 정부의 극도의 수입 억제 정책으로 도처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바심이 생겨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 실적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 전문 수입상의 경우, 시장 환율보다 10~15% 비싸게 거래되는 Export Earning 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물론 보다 상급 기관인 무역 협의회(Trade Council)의 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 업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www.globalwindow.org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L/C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L/C 개설에 필요한 대금 100%를 은행에 먼저 예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제 조건에 따른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다. 다만 미얀마 L/C 의 경우, 한국에서 선적 후 바로 협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성공적인 상담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미얀마의 열악한 전기 사정 및 통신 사정 때문에 전화, 팩스, e-메일이 자주 고장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회신이 없다고 해서 바이어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서둘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락에도 회신이 없다면 이때는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더라도 'No'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얀마와의 거래 시에는 미얀마의 열악한 전기 사정, 통신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